

≡ 뉴스 기획 연재 오피니언 PR마당 지난연재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법보신문

전체기사 구독신청 광고문의

[천리순례 7일차] 새벽녘 오도재에서 함양 용추캠핑장까지 30km 행선



김현태 기자



교계 입력 2021.10.07 15:50 수정 2021.10.08 11:25 호수 1604 댓글 1

순례길은 불편함의 연속...그중 화장실 가장 큰 골칫거리
전날 진행팀이 직접 섭외...좋은 인연 닿아 '무사히' 해결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10월7일 일정을 진행했다. 7일차인 이날은 오도재를 출발해 함양 용추그린하우스캠핑장까지 천리순례를 시작한 후 가장 긴 30km를 행선했다.

순례길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만든다. 빨래와 잠자리, 식사, 샤워를 비롯해 불편함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 화장실이 가장 큰 골칫거리다. 순례대중과 외호대중 등 120여명이 함께하는 삼보사찰 천리순례도 예외일 수 없다.



아주먼 사랑나눔 캠페인
한달 만원 후원은 마음입니다.
후원 상담 ☎ 070.4707.1080

최신뉴스

더보기 >

교계

대법원, “조계종노조 징계 부당하다”
판결



한마음과학원, 제6회
학술세미나 열려

2001년 중단된 '뇌허불교학술상'...20년 만에 ...
제2회 운강명상학술상 이영진, 하현주 수상...1...
불교문예연구소, 제18차 학술대회 개최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 '사유하는 기쁨' 출간...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 소집...‘정청래 의원...
[천리순례 18일차] 423km 64만 발걸음 옮겨 ...
함박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주년 기념 인연이...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의날 기념식 국무...

연재



세심청심

차별없이 내리는 비



나의 발심수행

다라니기도 김준우(48, 법성)...



최명숙의 일상의 발견

17. 안동 봉정사 단상





독실한 불자인 알뜰함양주유소 장숙이 대표의 도움으로 순례단은 새벽 휴게장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휴식장소는 하루 전 진행팀에서 직접 섭외한다. 화장실 사용을 위해 대개 주민센터, 마을회관, 보건소 등을 이용하는 데 적당한 거리에 섭외할만한 시설이 없어 진행팀의 큰 고민이었다. 오늘은 다행히 출발지에서 4km 떨어진 첫 번째 휴식장소부터 좋은 인연이 다가왔다.

진행팀이 고민 끝에 한 주유소를 찾아 사정을 얘기했더니 오히려 “찾아와 주시면 영광”이라며 흔쾌히 장소사용을 허락했다. 알고 보니 천리순례 진행팀이 찾아간 알뜰함양주유소 장숙이 대표는 순례단의 함양 방문 소식을 듣고 오도재를 찾아 직접 맞이할 만큼 독실한 불자였던 것. 장 대표는 순례단이 주유소를 찾기 1시간 전부터 불을 밝히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비품을 준비하는 등 순례단 맞이에 여념이 없었다.

회주 자승 스님은 “이른 새벽시간에 화장실 사용을 허락해주고 순례단을 환대해줘 감사드린다”며 108염주를 직접 손목에 걸어주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회향지인 용추그린하우스캠핑장에도 선연은 이어졌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일정을 확인한 뒤 7일차 숙영지가 방창덕 포교사단장이 운영하는 시설이었던 것.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방 단장은 숙영지는 물론 공양까지 흔쾌히 보시했다. 방 단장은 “삼보사찰 천리순례 대원력이 성취되기를 기원한다. 외호대중으로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무진등

마하의료회장 김정순 약사



이제열의 소리를 관하다

35. 지옥의 소리-상



많이 본 뉴스

- 01 광주시, '가톨릭 순례길' 조성사업 공식 사과...“전면 재검토”
- 02 [천리순례 12일차] 새벽부터 세찬 비바람 맞으며 다시 27km 전진
- 03 정청래 의원, 문화재관람료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
- 04 미디어오늘, 불교계 언론보도 왜곡하나
- 05 근현대 불교 이끈 구하·한암 스님 조명...“역사 바로세워 자부심 높일 것”
- 06 조계종 “불교계 사기꾼으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 공개 참회하라”
- 07 오대산 정취와 뮤지컬을 한눈에...‘사찰 뮤지컬’이라는 장르 탄생
- 08 [천리순례 9일차] 화엄의 바다, 법보종찰 해인사에 들다
- 09 [천리순례 14일차]사부대중, 한국불교 위기극복 위해 머리 맞댔다
- 10 봉은사 개산대제, 지역문화예술축제로 업그레이드



순례단은 해발 731m의 지안재를 넘어 함양산산향노화엑스포가 진행 중인 상림공원, 목재문화체험관을 거쳐 숙영지에 도착했다. 불법승 삼보를 향한 지극한 마음으로 떠난 길이기에 모여든 선연들로 멈춤 없이 순례를 이어갈 수 있었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장을 역임한 이현웅 서원대 융복합대학 교수가 1일 참가자로 동참했다. 이 교수는 “한국문화정보원장을 역임하며 전통문화 그중에서도 불교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이야기를 듣고 꼭 동참하고 싶었는데 마침 기회가 되어 참여하게 됐다. 천리순례단의 일원으로 걷다보니 마음이 경건해지고 정화되는 느낌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함양=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604호 / 2021년 10월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당신의 1만원, 2명에게 새 삶이 됩니다

교도소·병원·군법당에 신문 보내기 010-4655-7010로 문자 '법보시'를 보내주세요

관련기사

- └ [천리순례 6일차] 실상사 맑은 증성 뒤로 하고 깨달음의 길에 서다
- └ [천리순례 5일차] 우직한 소걸음으로 지리산 넘어 남원에 달다
- └ 삼보사찰 천리순례 대중 고불문
- └ [천리순례 4일차] 강풍 몰아치는 지리산 시암재에 오르다
- └ [천리순례 3일차] 새벽엔 도량석·칠정례...식사 땀 오관개·축원으로 마무리
- └ [순례단 인터뷰] 5조 조장 지해 스님
- └ [순례단 인터뷰] 순례단장 원명 스님
- └ [천리순례 2일차] 새벽을 깨우는 맑은 목탁 소리 따라 섬진강변을 걷다
- └ 정혜결사도량 송광사서 불교중흥 발원 천리순례 첫발 내딛다
- └ [순례단 인터뷰] 천리순례길 위에서 1주년 맞이한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 └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리순례단 격려방문
- └ [천리순례 8일차]벼 익어가느 길목에서 가야산을 바라보다
- └ [천리순례 9일차] 화엄의 바다, 법보종찰 해인사에 들다
- └ [천리순례 10일차]해인사서 22km 나아가 경북 고령 예마을캠핑장 도착
- └ [천리순례 11일차] 거센 비바람 뚫고 걸어 걸어 동쪽으로 나아가다
- └ [포토 뉴스] 순례길서 만난 연꽃의 향연
- └ [천리순례 12일차] 새벽부터 세찬 비바람 맞으며 다시 27km 전진
- └ [천리순례 13일차] 구름 걷힌 가을 벌판 가로 질러 부곡 입성
- └ [천리순례 14일차]사부대중, 한국불교 위기극복 위해 머리 맞댔다
- └ [천리순례 15일차] 물결처럼 늘어난 환영 현수막...밀양불자도 함께 걸었다.
- └ [천리순례 16일차] 느린 걸음 씬 없이 움직여 호국선양도량 표충사 도착
- └ [천리순례 17일차] 시월 한파 속 역새의 무설법문 지남 삼아 사자평 가로지르다
- └ “불교중흥의 원력 키운 시간...대중의 힘 발견”
- └ [천리순례 18일차] 423km 64만 발걸음 옮겨 통도사 진신사리 친견



이메일



기사저장



공유

저작권자 ©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1개의 댓글

작성자

비밀번호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작성이 간편합니다.

0 / 400

등록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① BEST댓글



주선 (비회원) | 2021-10-07 17:48:50

삭제

고행하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업아에 쌓여있는 자신의 죄업인 때를 벗겨내고
불성의 자성이 맑게 들어옵니다.
모두 Have a good day~
모두 Good luck 되십시오.

답글 작성



1



2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발행인 : 김형규 | 편집인 : 이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규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법보신문.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NB